

## 한달여 남은 21대 국회...광주·전남 현안 법안 폐기 위기

### 광주·전남 현역 국회의원 18명 중 12명 낙선 인공지능·풍력발전·인구감소 특별법 '낮잠'

제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주요 현안사업 법안들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현역 국회의원 상당수가 22대 총선에서 낙선해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할 동력을 상실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현안사

업을 뒷받침 할 법안들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 현역 국회의원 18명 중 광주 7명, 전남 5명이 낙선해 남은 회기 중 계류 중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주는 미래 먹거리산업인 인공지능(AI) 관련 법안이 1년 넘도록 표류 중이다.

지난 2022년 12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해 2월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광주시의 주력사업인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지원을 견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지역 현안사업 법안도 상당수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전남도의 대표 사업인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은 상임위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5월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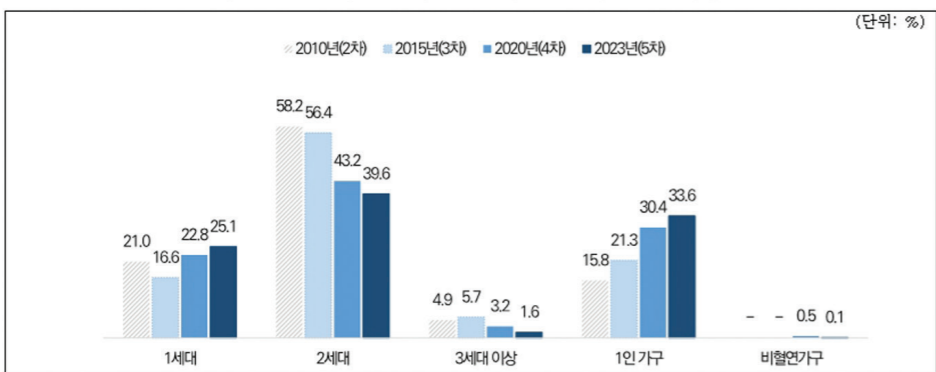
표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3년이 다 되도록 심의만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풍력발전산업 촉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의료기관 설립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공기관 이전시 인구 감소 지역을 고려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상임위 논란 끝에

계류 중이다. 국가기업별 지정과 특별 재심 근거를 마련하고 진상규명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남도 관계자는 "풍력발전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미래 먹거리 확보 등 지역 존폐와 관련된 법안이라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21대 국회 5월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형택기자

## 3가구 중 1가구 '나 혼자 산다'...60세 이상이 절반 넘어

### 여가부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33.6% '1인 가구' 연령별로는 70세 ↑ 27%, 60대 25%...여성이 62.3% 1인 가구의 가장 바라는 정부 정책은 '주택안정 지원'

[ 세대 구성(2010년, 2015년, 2020년, 2023년) ]



지난해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33.6%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세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1인 가족인 셈으로, 3년 전(30.4%)보다 3.2%포인트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전국 12만4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지난해 국내 1인 가구는 33.6%로 2020년 조사 때보다 3.2%포인트 상승했다. 세 가구 중 1인 이상이 1인 가구인 셈이다. 전국 1인 가구 비율은 2010년 15.8%, 2015년 21.3%, 2020년 30.4%으로 계속 증가했다.

부부 등으로 구성된 1세대 가구도 25.1%로 3년 전보다 2.3% 증가했다. 반면 부부와 자녀 등으로 구성된 2세대 가구는 39.6%로 3년 전보다 3.6%포인트 감소했다. 1인 가구를 성별로 보면 여성(62.3%)이 남성(37.7%)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27.1%로 가장 많았고, 60대(25.7%)가 뒤를 이었다. 결국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인 것이다. 이어 50대(13.6%), 30대(13.1%), 30세 미만(10.8%), 40대(9.8%) 등의 순이었다. 1인 가구의 혼인상태는 사별(37.8%)과 미혼(37.2%)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이혼 또는 별

거가 20.6%로 집계됐다. 이 밖에 사실혼이나 비혼 동거 등을 포함한 배우자가 있지만 함께 거주하지 않는 유배우 1인 가구는 4.4%였다. 1인 가구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42.6%가 '균형 잡힌 식사'로 3년 전(42.4%)과 비슷했으나,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37.6%)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돼 외로움'(23.3%)이라고 답한 응답률이 3년 전보다 증가했다. 1인 가구로 살면서 가장 바라는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안정 지원(37.9%)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돌봄 서비스 지원(13.9%), 심리·정서적 지원(10.3%), 건강증진 지원(10.1%), 가사 서비스 지원(10.1%)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돌봄서비스 지원', '건강증진 지원'을 꼽은 비율이 높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주택 안정 지원'에 대한 수요 높았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의 70.5%가 주택 안정 지원을 원한다고 답했다. 이어 30대 61.9%, 40대 49.4%, 50대 42.1% 순으로 주택 안정 지원을 꼽았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족 지원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유형별 특성에 맞는 가족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전국 가족센터 기능을 확장하여 1인 가구, 노부모 부양가족 등 도움이 필요한 모든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가족 보듬사업'을 시행한다. 이슬비기자



전남도의회 소속 의원 10명이 17일 도의회에서 전남 국립 의대 신설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갈등 없는 화합'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의회 제공)

## 전남도의원들 "전남 의대, 화합으로 힘 모아야"

전남도의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전남 국립 의대 신설과 관련해 '갈등 없는 화합'을 강조했다. 차영수 운영위원장(강진) 등 도의원 10명은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가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의대 신설 대학 추천을 위한 공모 방침을 밝힌 이후 목표과제와 순천대 간 과열된 유치경쟁을 넘어 동시 갈등으로까지 확대되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차 위원장을 비롯해 이재태(나주3), 김주용(강진 비례), 김문수(신안1), 김성일(해남1), 정철(장성1), 김정희(순천3), 김정이(순천8), 이광일(여수1),

한숙경(순천7) 의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국립 의대 신설은 30년 만의 기회로, 현 정부 임기 내 신설이 최우선 목표"라며 "그러나 갈등과 대립이 장기화되면 평도 때도 놓치게 되는 만큼 지자체와 정권, 대학이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일 없도록 화합과 상생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단일된 목소리를 내 달라"고 호소한 뒤 "김영록 지사는 공모와 심사, 모든 과정을 의회와 협력하고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 점 의욕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기자

**함평 나비 대축제** 제 26회 HAMPYONG BUTTERFLY FESTIVAL

2024. 4. 26. (금) - 5. 6. (월)  
함평엑스포공원 일원

주최 | 함평군 주관 | 함평축제관광재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한국관광공사 ex 한국도로공사 KORAIL 한국농촌학회 (사)한국응용곤충학회